

“실용성 있는 치의학 발전 매진하겠다”

전남대치과병원 황운찬·박찬 교수

올해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연구환경 개선 감사...진료·연구 통해 전남대 위상 높일 것”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임상 등 실용성 있는 치의학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은 보존과 황운찬 교수와 보철과 박찬 교수가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3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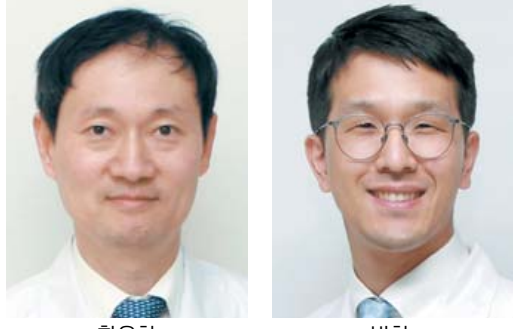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매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국내 과학기술 학술지에 소개된 논문 중 학회별로 가장 우수한 논문 한 편씩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종합위원회가 절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박찬 교수와 연구진은 지난해 4월 대한치과보철학회 영문학회지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JAP)’에 발표한 ‘다양한 후경화

처리에 따른 3D 프린팅된 광중합레진 치아의 중합효과에 대한 연구(Comparing Volumetric Biological Aspects of 3D-printed Interim Restoration under Various Post-curing Modes)’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3D 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치과보철물 제작은 재료선택, CAD소프트웨어 및 관련기술, 프린팅출력능력, 후경화조건 등 모든 과정의 표준화와 정밀성을 요구하는 데 이러한 프린팅과정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후경화조건에 관한 실험으로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후경화조건이 치과보철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계물성적·세포독성적 측면에서 평가했다.

이 논문은 애당초 실험을 위한 논문이 아닌, 치과임상에서 박 교수가 궁극했던 부분을 실험하



황운찬



박찬

던 중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결과는 현재 임상에서 하나의 프로토콜로 사용중에 있다.

박 교수는 “저의 첫 지도학생의 실험이자 논문으로 매우 보람있는 과정이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임했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고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연구자이자 임상교수로서 연구발표를 위한 연구이기 보다는 실제 치과임상에 쓰일 수 있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교수는 “연구와 논문을 넘어 특허나 제품개발, 나아가 창업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치의학

분야와 전남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운찬 교수와 연구진 또한 지난해 2월 대한치과보철학회지 ‘RestorativeDentistry&Endodontics’에 발표한 ‘Osteostatin과 MTA를 이용한 직접치수복조술 후 경조직 형성능’이란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Osteostatin과 MTA를 이용해 직접치수복조술을 시행한 경우 MTA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보다 경조직 형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여 임상에서 직접치수복조술에 osteostatin의 사용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교수는 이번 논문 발표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 열악한 연구 환경을 꼽았다.

초기에는 실험실 세팅이 되지 않고 연구비도 없어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전남대치과병원 및 전남대학교의 도움으로 연구비를 수주하고 연구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저명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진료, 연구, 강의 등 모든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오복기자



담양 봉산면 지사협, 홀몸 어르신 생신잔치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홀몸 어르신을 초대해 생신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6-7월에 생일을 맞이한 홀몸 어르신 8명을 초대해 생신 축하파티와 여름 속옷, 떡 선물세트 등을 전달하고 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상차림을 제공했다.

또한 어르신 생신기념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를 탁상용 액자로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생신 초대사업은 봉산면 협의체 박영아 위원(담양애꽃 대표)의 식사 후원과 김규남 위원(담김떡 카페)의 생일떡케이크 후원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사식도 없이 그동안 누구 한 명 쟁겨준 사람이 없어 생일을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맛있는 식사와 선물까지 챙겨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써준 협의체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영광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업소 감시·단속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일 “관내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유해 가능업소를 감시·계도하고자 매일 1회 이상 청소년 보호·유해환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7월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영광교육지원청 실무자 등으로 활동 인원을 구성했다. 이들은 최근 영광군 흥농읍 가마미 해수욕장을 방문해 유해환경 감시·단속 활동과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카페, 숙박업소 등을 방문하고 피서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과 위반 행위 신고·고발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김동규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전곡적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다”며 “영광 주민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목포우리신협, 대성동·산정동에 열무김치 후원

목포우리신협이 목포시 대성동과 산정동의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위해 열무김치를 후원했다.

목포우리신협은 최근 대성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열무김치 70통(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들은 같은 날 산정동에도 열무김치 70통을 지원했다.

목포우리신협은 6년여 동안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게 꾸준한 생필품, 김치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예란 목포우리신협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열무김치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남구, 2분기 ‘친절 공무원’ 8명 선정

광주 남구의 2분기 ‘친절 공무원’이 선정됐다.

남구는 1일 “최근 직원 사기 진작과 친절 운동 활성화를 위해 2분기 친절 공무원을 선정, 친절 화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친절 공무원으로는 올해 4-6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친절 직원으로 언급된 이들이 선정됐다. 선정된 직원은 총 8명(7급 2명, 8급 5명, 9급 1명)이다.

지역경제과 박순식 주무관(수의 7급)은 대형유기견 관련 민원에 친절하게 예정을 갖고 처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환경생태과 박소리 주무관(행정 8급)은 친절한 태도로 전화 문의에 응대했으며 복지정책

과 임성은 주무관(복지 7급)과 김현주 주무관(복지 9급)은 성실한 태도로 복지 고충 상담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복지과 최선민 주무관(복지 8급)은 신속한 주거복지업무 처리, 주택과 정다은 주무관(행정 8급)은 적극적으로 서류 발급을 도왔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월산동행정복지센터 고현진 주무관(복지 8급)은 업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했다는 평가를, 백운2동행정복지센터 오승현 주무관(복지 8급)은 수급자 신청에 탈락한 주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했다는 후기를 받았다. /김대인기자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우정의 선물 가방 제작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지난달 31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광주나눔터에서 ‘평화의 빵과 우정의 선물 가방’ 제작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RCY 단원 15명과 적십자 봉사원 6명이 참여했으며 제작된 빵과 가방 등은 고려인마을을 우크라이나 아동청소년에게 전달했다.

봉사활동은 ‘STAND WITH UKRAINE, 평화의 빵 만들기’ 및 ‘우정의 선물 가방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RCY 단원 등은 광주 고려인마을에 이주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아동 청소년을 응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피자빵 300개와 우정의 선물 가방 200세트를 만들어 전달했다. /김대인기자

우정의 선물 가방은 노트, 연필, 지우개, 볼펜, 물갈 등 9가지 학용품과 우정의 편지로 구성됐다.

김보형 RCY단원(광주비이고 1학년)은 “친구들과 함께 직접 피자빵과 우정의 선물 가방을 제작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우크라이나 피란민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도주의 리더가 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인기자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행복나눔 쌀’ 전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는 1일 “최근 광주 시교육청에 ‘행복나눔 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성신 농협광주본부장, 김석찬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갑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3천300만원 상당의 쌀 1천200포(10kg)를 준비해 300세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석찬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

다”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동신대 정보보안학과 3명, 융합보안학회 최우수논문상

동신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1일 “2학년 오명호(24)·공승준(26)씨, 3학년 신현창(25)씨가 ‘2022년 한국융합보안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종민 교수의 지도를 받아 ‘ELK 스택(Elastic stack)과 Sysmon(시스몬)을 이용한 공격방어 공격 사전 침해 탐지 및 대응’ 논문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8개 세션과 자율주행보안 2개 특별 세션으로 나눠 64건의 학술논문과 융합보안 캡스톤 등이 발표됐다.

동신대 김종민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학과 정보보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와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있다”며 “학생들의 전공 실무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광주대 간호학과 강하은 학생, 광주시장 표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1일 “간호학과 강하은(4년) 학생이 최근 제11회 인구의 날을 맞아 진행된 기념식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응과 가족 친화 환경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하은 학생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교내 탑어스(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모임)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 캠페인과 봉사, 토론회 등을 주최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탑어스 동아리 대표를 맡아 인구보건복지협회 등과 대학생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치관 실천에 앞장섰다. /임재만기자



박상철 호남대 총장, 주한필리핀 공사와 환담

주한필리핀대사관 로물론 빅터 엠 이즈라엘 주니어(ROMULO VICTOR M. ISRAEL, JR.) 공사 겸 경영사가 최근 호남대학교를 방문해 박상철 총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고려인마을(이사장 신조아) 유라시안(필리핀)공동체의 요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호남대학교 IT스퀘어 소강당에서 열리는 필리핀 공동체 역사업무 차 호남대를 방문한 로물론 공사는 박상철 총장과 교육 교류 활성화 및 상호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실시된 필리핀 공동체 역사업무는 광주 지역거주 필리핀인들이 여권갱신, 출생신고, 비자신청 등 민원을 보기 위해 서울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진에 예약한 1천여명이 참석해 호응을 얻었다. /임재만기자

인사	
경찰청	◇경무관 전보 ▲광주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병권 ▲수사부장 임병숙 ▲자치경찰부장 박우현 ▲광주광산경찰서장 정진관 ▲전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최보현
조선대	▲경상대학장-경영대학원장 이재홍
세계일보	▲사회2부 전남주재 차장대우 김선덕